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한식에 꽂혀서 주로 만들어 먹곤 합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친구를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친구가 매우 즐거워 해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매우 음식은 못 먹는 편이어서 불고기와 잔치국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로 빵과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다음에는 친구가 좋아하는 김밥과 김치찌개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I like cooking.

These days I am so into Korean food so I have been cooking my own meals. Yesterday I invited my friend over and both of us had a good time making our food. We couldn't eat spicy food so we made Bulgogi and Janchi noodles. After that we had bread and coffee as desserts. I feel happy when someone enjoys the food that I made with effort using all the fresh ingredients. We talked about making the food that my friend likes which are Kimbap and Kimchi stew next time. I am looking forward to that day!